

2025 년 2 월 글로벌 보안 전망: 멕시코

- 트럼프 행정부, 멕시코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 지정 검토... 국경 긴장 고조
- 미국-멕시코 국경 이민자 포화... 강경 단속에 소요 사태 우려



Source: The Texas Tribune

현황

2025 년 1 월 20 일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연의 행정명령을 통해 '반(反)이민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경 지역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 장벽 건설 재개와 입국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 군 병력 국경 지역 배치를 위한 예산 투입도 신속히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방부에는 불법 이민, 인신매매, 마약 밀매 및 기타 범죄 위협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 또한 발동하였으며, 멕시코 마약밀매 조직을 외국테러 조직(FTO)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도 포함됩니다. 이같은 엄격한 이민 단속 조치로 인해 미국 국경을 접하는 멕시코 내 병목 현상과 국경 주변 보안활동에 미군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불허하고, 불법체류자 추방에 협력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방정부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현재 이민자들의 출입국관리 일정을 예약하는 CBP One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이 중지됐고 향후 모든 일정이 취소됐고, 이로 인해 중남미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온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멕시코 국경 도시들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이민 정책 세부 사항은 현재 명확하지 않지만, 국경 부근 이민자 병목 현상이 미국 발 멕시코 및 비(非) 멕시코 국적 이민자들의 대규모 강제 추방 조치와 함께 더 악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대비해 멕시코 전역, 특히 미국 국경으로부터 떨어진 중부 지역으로 이민자 및 추방자 수용시설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불법 이민 조치와 더불어, 멕시코의 마약밀매 조직(DTO)을 대(對)미국 외국테러 조직(FTO)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해당 행정명령에서는 멕시코 카르텔을 자국 내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국가적 범죄 조직인 트렌-데-아라고(Tren de Aragua) 및 마라-살바트-루차(Mara Salvatrucha) 갱단과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국토 안보부 장관에 '적대국 외국인 법(Alien Enemies Act)' 시행 준비를 지시하였으며, 국무장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단체의 위협을 억제하고 관련 인물에 대한 제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주요 악화 지표	평가
이민자들의 지속적인 소요 사태	국경 도시 및 기타 대도시 내 이민 단속 사무소 주변에서 이민자들의 시위 발생 가능성 높음. 이러한 집회가 과격해질 경우, 국경 주변 육로 이동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보안 당국은 이러한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점차적인 강경대응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미국 정부의 주요 국경 검문소 단기 폐쇄 명령	여파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1969 년 '인터셉트 작전(Operation Intercept)'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멕시코 국경의 주요 입국 거점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양국 간 지상 교통 및 공급망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미국-멕시코 정부 간 DTO 대응을 위한 양자 안보 협정 협상	양국 정부는 마약 밀매 조직(DTO)에 대한 강경 단속을 위한 양자 간 안보 협력 협정을 협상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보안 작전의 증가로 인해 해당 조직들의 반발보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범죄 조직 지형이 더욱 빠르게 분열되면서 중장기적으로 폭력 사태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음.

※황색: 일부 변화 가능성, 보안 상황의 변화 미미/ 주황색: 보안 상황의 변화 가능성 다수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정책 결정은 향후 수개월간 멕시코의 보안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각적으로 미국 국경에서 더욱 강도 높은 이민 단속 조치가 시행되며 미국 입국이 급격히 제한된 제한된 상황에 멕시코 내 병목 된 이민자 증가로 현지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강력한 이민 단속 조치는 멕시코 내 국경 지역에서 국지적인 소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바하칼리포르니아▲치와와▲코아우일라▲소노라▲타마울리파스▲치아파스주 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도 멕시코시티 및 주요 도시의 이민 단속 기관 주변 지역에서의 시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의 시위는 육로 이동에 단기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그룹과 현지 주민 간의 충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현지 자원의 제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및 멕시코 국경 수비대는 이러한 시위를 강경 진압 기조로 이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에게도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멕시코 마약밀매 조직을 FTO 로 지정할 경우, 단기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영향은 경제 및 이민 정책 측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의 신속한 추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멕시코 마약밀매 조직이 FTO 로 지정됨에 따라, 멕시코 영토 내 미군의 작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법적 및 정치적 절차를 추가적으로 수반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멕시코 정부의 범죄 조직에 대한 강경한 단속을 압박하는 효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헬리코▲시날로아▲소노라▲타마울리파스 등 미국 정부가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DTO 들의 거점 지역에서 보안 작전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니다. 멕시코 연방 정부는 이러한 조직의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 수행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이 과정에서 무장 갱단들의 강한 반발로 인한 보안 상황 악화와 범죄 조직의 수뇌부 제거는 범죄단체 지형의 해체로 인한 세력 내 혼란은 보안 수준의 악화를 가중 시키는 요소로 예상됩니다.